



난민 소년의 죽음…모래조각으로 새긴 반성문

래조각으로 남겼다. 쿠르디는 지난 2일(현지시간)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돼 전세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던졌다. 팻넉은 ‘파도에 씻겨간 인류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모래조각 예술가인 수다르산 팻넉이 지난 4일 인도 동쪽에 위치한 부바네스와르에서 65km 떨어진 푸리 해변에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의 3살 난민 소년 에이란 쿠르디가 사망한 그대로의 모습을 모델로 한 조각을 완성했다. 팻넉은 ‘파도에 씻겨간 인류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EU, 난민 수용 16만명으로 확대

독일 3만1000명·프랑스 2만4000명 추가 수용키로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소식통이 7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4만명에서 12만명 증가한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독일이 3만1000명, 프랑스가 2만4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독일

은 이미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난민 1만여명과 합쳐 총 4만여명을 받아들이고 프랑스는 3만명 이상을 수용하게 된다.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에 따르면 스페인에는 약 1만5000명이 할당됐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가 향후 2년에 걸쳐 2만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

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EU의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끌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000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가장 많은 1만5000명 수용을 받아들였으며 프랑스는 6750명을 수용하는 방안이 동의됐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난민 강제할당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도착지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EU 회원국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촌, 한류 타고 한국어 열풍

지난해 26개국 1111개교 초·중·고 정식 과목 채택

외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저지 주 노던밸리 데마레스트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추가했다.

뉴욕 할렘의 신생학교인 데모크래시 프렘 인듀어런스 고등학교와 뉴욕 브롱스 소재 브롱스 프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야 한다.

이에 따라 데모크래시 프렘 공립학교 네트워크에 속한 학교 중 한국어가 필수과목이 된 학교는 5개로 늘어났다.

이미 한국어가 정규 과목인 학교에서는

한국어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0년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했던 뉴저지 주의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반이 9개로 늘어났다.

5년 전에 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많아졌다.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도 5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2010년에 21개국 540개였으나 지난해에는 26개국 1111개 학교로 늘어났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새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5만7400여 명에서 9만31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中 군사 열병식은 20세기 흉물”

美 WP “침공과 독재 연상…군사력으로 이웃 국가 위협” 비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일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WP는 5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군사 열병식은 20세기의 흉물스런 유산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하고 “히틀러와 스탈린, 침공과 독재, 군사적 근육과 정치적 권위를 동일시하는 이념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어 “공산주의 중국조차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10년에 한 차례로 열병식 실시를 제한했다”며 “그러

나 시 주석은 1만2000명의 병사와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500점이 넘는 군사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이고 복잡하게 안무가 이뤄진 열병식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WP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이 보내는 메시지가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열병식 당일인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알래스카 인근의 베링해에 전함 5대를 보낸 사실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세계로 번지는 ‘중국발 경제위기’

한국·일본·대만 7월 수출량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

칠레, GDP 성장률 반토막…남미 매출 25% 감소 전망

전승철을 맞아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나흘만에 다시 개장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간 전승철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저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원조 등 중국만 바라보던 신흥국은 이미 위기=7일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중국발 경제 위기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에 이미 옮겨붙었다.

지난달 11일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은데다 원자재 수출이 급감하면

서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우선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당장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일본, 한국, 대만의 7월 수출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떨어졌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기대온 칠레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 토막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2010~2013년 연간 성장률은 4%였지만 중국발 약재가 타진 올해는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에 타격을 입은 신흥국들은 위안화

평가절하 직후 환율시장이 요동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신흥국에 제공을 약속한 차관 역시 세계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을 돌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차관 제공이 지연·취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환 요구가 시작되던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국 경제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미노 효과’ 신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약재=경제 위기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존디어는 난데없이 남미지역 매출이 급감했다. 중국이 커피, 대두, 설탕 등 농산물 수입을 줄이자 브라질 등 남미국가 농민의 여건이 나빠졌다.

돈이 없는 농민들은 존디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존디어의 올해 남

미 매출은 25%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라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글로벌 위기에서 빚겨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 ‘엔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능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는 몇 달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내리면서 전세계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면 선진국들로서는 디스플레이를 극복하기 더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FDA 품질인증

구운소금

추석 선물세트

소중한 분께 귀한 마음을 전하세요

2호세트 48,000원

3호세트 40,000원

4호세트 20,000원

상기 세트가격은 소비자가격 (택배비제외)입니다.

10세트 이상 선물구입은 전화주시면 공장도 가격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0770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예약

함토참춧가마

한우&돼지갈비전문점

주문

참숯, 목초액, 구운소금

참숯가마

9월 21일부터 24시간 OPEN!!

▶ 불뺨는 날 화, 목, 토, 일

▶ 다량의 원적외선과 좌훈으로 힐링

▶ 불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품격있는 모임은 1+ 이상의 한우암소

● 부담없는 외식은 참숯 직화구이 돼지갈비(국내산)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